

서울시, 트램 운영 속도낸다 위례선 ‘예비주행시험’ 돌입

초저상 구조… 내년 개통 목표
마천역~북정역~남위례역 연결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 기대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 위례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로,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북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 5.4km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고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시험기간 동안 총 5000km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 시험 중 ▲가속·제동 ▲곡선주행능력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승차감 ▲소음·진동 등을 종합 점검해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시민들이 안심하고 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노면전차는 도로를 공유해 운행하는 특성상, 위례선 전 구간에 13개 교



트램차량(오송)

(서울시

차로와 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예비주행시험 기간 동안 다양한 사전 시험운행을 실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 차량은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노면전차) 특성상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것이 특징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를 적용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경보를 울리

고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위례선 본선 구간 종합 시험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철도 운영기관과의 인수·인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선트램 개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트램운행을 통해 이동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260개 학원, ‘7세 고시’ 등 384건 법령 위반”

교습정지·과태료 등 433건 행정처분
“레벨테스트 부작용 해소 입법 추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 시행 등 사교육 조장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위반 학원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000만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에서는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거나 유아 선발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했고, 총 23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선발 시험, 20곳은 반 편성 목적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밖에 ▲가짜, 과대 광고(62건) ▲교습비 게시위반(61건) ▲교습비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시설위반(25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

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아울러, ‘7세 고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사교육 부작용을 막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년 인천항 재개발 전담조직 가동”

해수부 전담인력이 관리·기획 업무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전담할 해양수산부 인력이 2026년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4일 “해양수산부 내 전담인력 신설 안건이 정부와의 협의를 마쳐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과 함께 ‘인천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체계적인 항만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내항재개발전담조직 신설’ 내용으로 하는 2026년도 정기직제 반영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국회(지역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을 지속 방문하며 내항 재개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이번 정기직제 반영으로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총 3명*(5급 2, 6급 1)의 전담 인력

이 맡게 되며 사업관리 및 기획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 재개발에 맞춰 ‘인천항내항재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정기직제 반영은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교감의 성과이며,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국가정책으로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1단계 사업의 적기 착공을 시작으로 재개발 본격화와 함께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를 신속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12000쌍 신청

경기도 4.5대 1 경쟁률 기록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

해야 한다.

지난 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으며,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윤윤수 회장, 한국외대 발전기금 10억 기부

〈미스토홀딩스〉

윤윤수 미스토홀딩스 회장(정치외교학과 66학번)이 모교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한국외대는 지난 달 22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 특별 축하 모교를 찾은 윤 회장은 박정운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발전기금 기부 서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윤윤수 AI 석좌교수 기금’으로 조성돼, 한국외대의 AI 분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발전기금 기부 증서와 함께 기념 촬영하는 윤윤수 미스토홀딩스 회장(왼쪽)과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한국외대

양성과 학문적 성과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라이즈센터장 공개 모집

8일부터 16일 14시까지 공모 접수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는 전담기관인 서울라이즈센터장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서울라이즈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라이즈센터장은 라이즈 사업의

컨트론타워로서 ▲사업 기획·집행·성과관리 총괄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교육부와와의 협업 ▲서울 소재 대학,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행정, 교육)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 연구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11

년 이상 관련분야(행정, 교육) 연구·실무경력자 ▲관련분야(행정, 교육) 13년 이상 경력자(공무원 퇴직자 가능) 등이며, 임기는 1년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18~19일, 면접심사는 23~24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RISE 사업 인력교류 활성화

고려대학교가 지난 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한인과학기술자대회(EKC 2025)에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기반 확대와 RISE 사업을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전

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현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및 펀딩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려대는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현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이현진 기자